

지역 소식통



이건식 김제시장, 사전투표 행사

이건식 김제시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4일 김제시 진봉초등학교에 마련된 진봉면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지평선 추어의 보리밭 축제 개막식에 참석 후 사전투표를 하였으며 투표를 마친 뒤 선거중사자들을 격려하고 투표 종료 시까지 투표사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시장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선거인만큼 전 시민이 투표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당일인 5월 9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5월 4~5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하도록 했다.

김제지역 사전투표소는 각 읍면동에 1개소씩 19개소에서 운영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꼬마 그림책 거장展 개막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책박물관(관장 박대현)에서는 '꼬마 그림책 거장展' 개막식을 지난 4일 참여학생과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졌다.

거장전에 참여한 어린이 15명은 모두 초등학생으로, 지난 2월 공개모집 과정을 통해 선정되어 6주간 오찬 그림책 작가와 함께 글 및 콘티, 스토리보드 작성, 원화 스케치, 채색, 더미북 완성 등 그림책을 만드는 전 과정을 열심히 익혔다.

책박물관 제20회 기획전이기도 한 이번 거장전은 그림에 소질이 있거나 작가가 꿈인 어린이와 함께 하는 의미있는 지역연계 창작프로그램으로 멀게만 느껴졌던 책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계기도 됐다.

한편, 책박물관에서는 하반기 기획전시 주제를 '나의 애장서'로 정하고 사연이 있는 책, 엽서 등을 모집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주민참여 감독관제 확대 시행

김제시, 건설공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위해

김제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의 적극적인 의사 수렴과 반영을 위해 기존 읍면동당 5명이었던 주민참여 감독관을 마을별 1명씩, 총 724명으로 8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민원 해결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고려해 마을의 민원을 직접 해결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마을별 이·동장으로 확대 위촉한 것이다.

김제시는 새롭게 위촉된 주민참여 감독관에게 감독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확대 시행에 적극 대비하고 공사가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반영되어 주민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시민이 직접 공사현장을 감독하여 부실 공사를 원천 차단하고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시민의 행정 참여권을 확대함으로써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만드는 데 초석을 놓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추정가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하여 해당 공사가 설계서 내용대로 적정한 시공 여부를 감독하고,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 사항, 공사 절차상에서의 개선희망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반영 하도록 해 공사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감독관 권한을 수행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이 어린이가 위험상황에 처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요령 습득을 위한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짓는다.

완주군-어린이안전재단, 업무협약 체결

어린이 안전 체험관 설치·운영 사업 추진

완주군이 어린이가 위험상황에 처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요령 습득을 위한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짓는다.

완주군은 지난 4일 박성일 완주군수,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전북지부 강주일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완주군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전북지부는 아동이 안전한 아동친화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운영 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안전체험관은 어린이가 위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통신, 생활안전, 재난안전 등 9개 분야, 20여종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완주군은 체험관이 단순한 인테리식 체험이 아닌 테마별로 어린이가 직접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할 예정이다.

군은 올 하반기부터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등을 이행한 후 2018년 상반기에는 체험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간 학교 보건법, 아동복지법 등에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관내에 린이 안전 교육시설이 없어 완주군 관내초등학교 및 어린이집등 교육기관에서는 전주시, 임실군

등 타 자치단체에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해왔다.

어린이 안전체험관이 설치되면 멀리 타 자치단체에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보다 안전하고 실감나는 안전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국 시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완주군의 아동친화 환경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어린이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며 어린이가 안전하게 마음껏 뛰 놀 수 있는 안전한 으뜸도시 완주 만들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세계로 미래로 커가는 어린이'

김제시 어린이날 행사... 뮤지컬·모범어린이 시상 진행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제95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지난 5일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슬로건:"세계로 미래로 커가는 어린이")를 개최했다.

이번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식전 공연(어린이 뮤지컬-누가 내 머리에 똥 샀어?)을 시작으로 '어린이 현장' 낭독, 아동복지유공자 및 모범어린이 시상, 축하, 어린이날 노래 합창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체험행사와 식후공연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라북도지사 표창으로 축산면사무소 함다란 님, 김제초등학교 이경희 님, 열매지역이동센터 박주현 님이 아동복지유공자 표창을, 김제동초 6학년 유영진 어린이가 모범어린이 표창을 받았으며, 김제시장 표창으로

는 만경초 임준호 등 19명 어린이가 모범어린이 표창을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가 진행된 잔디광장 앞마당에는 에어바운스 및 각종 체험부스가 설치되었다.

김제시 드림스타트에서 진행하는 '석고방향제 만들기',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와 함께하는 'LED 새싹화반 만들기', 김제농민회와 함께하는 '방울토마토 묘목나누기', 어린이 도서연구회와 함께하는 '꿈꾸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있는 '쉼터', 김제경찰서와 함께하는 '안전한 김제 만드는 나'야 경찰관, 폼나무 소방안전체험(119), 반짝반짝 야광 팔찌 만들기, 팔이 영감과 우르르 산토끼 종이 인형극 등 다양하고 신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서 어린이날 대축제 성료

군-현대자동차 노조, 미술·비보이 등 선행

완주군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마련한 2017 어린이날 대축제가 지난 5일 완주군청사 일원에서 6000여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다양한 체험 거리와 볼거리, 놀이마당의 장을 펼친 이날 행사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 호남지부 및 모범어린이 15명이 군수표창을 받았으며, 아동권리현장 낭독을 통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다짐했다.

체험 및 공연으로는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 △미술 △비보이

△3D프린팅 △레진아트 △페이스 페인팅 △사생대회 등 30종의 다양한 체험행사와 아이스크림과 솜사탕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등 어린이들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어울림 광장에 후호·쌍륙놀이, 제기차기, 물놀이 미끄럼장 등을 넓게 마련해 어린이들이 푸르른 잔디밭에서 안전하게 마음껏 뛰고 뛰구는 등 바깥놀이 에 온몸과 마음이 하나로 즐거웠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청소년 어울림 마당행사 성료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예술·놀이 체험장인 "2017년 제2회 청소년어울림마당행사"가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진봉면 추억의 보리밭 축제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진봉면 추억의 보리밭 축제와 연계하여 청소년 동아리 및 자를 참여공연, 이벤트 게임을 위주로 편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청소년 문화를 알리고 세대간 문화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했

다. 공연프로그램을 보면 청소년 동아리팀이 락밴드, 난타공연, 댄스등을 선보이며, 노래등 청소년 자을 참여 공연도 펼쳐졌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행사장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청보리밭에서 옛 추억의 놀이들도 즐길수 있는 한편, 당일 관람객을 위한 즉석 장기자랑시간과 공연마당 토크이 레이션 및 놀이마당을 알차게 기획하여 진행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